

정치 생명 걸고 “호남정치 복원” 野心



박지원
오늘 더민주 탈당
제3지대 머물며
야권통합 노력할 듯



천정배
뉴DJ로 정치개혁
더민주·국민의당
양쪽서 러브콜 받아



주승용
야권재편 선포
호남민심 반영 여부에
정치적 존재감 달려



박주선
신당 통합 적극 추진
세력간 이해 상충에
통합 실타래 미궁

뉴스초점 승부수 던진 광주·전남 중진들

4월 총선에 앞서 정치 생명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뛰쳐나와 호남정치 복원을 통한 야권 지형 변화에 나서고 있는 광주·전남 중진 국회의원들의 도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우선 광주에서는 천정배 의원(서구·5선)과 박주선 의원(동구·3선)이 신당 창당 등을 통한 호남정치 복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2일 더민주를 탈당하는 박지원 의원(목포·3선)과 ‘국민의당’에 합류한 주승용 의원(여수·3선)이 야권 재편의 선포에 서고 있다.
이들이 주목받는 것은 정치적 ‘안주’보다는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건 ‘도전’에

정치적 안주보다 도전 호남 자존심 세우고 강력한 리더십 만들지 주목

나섰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더민주에 잔류하거나 합류했다면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호남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 스스로 혐의를 찾아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이 실패한다면 30년 이상 쌓아온 그들의 정치 인생도 일거에 무너진다. 실

제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천정배·박주선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신당 세력 간의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신당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통합의 실타래 풀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여기에 천정배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 의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그가 제시한 원칙에 묶여 이도 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가 내세운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등용을 통한 호남정치 개혁도 쉽지 않다. 그가 원칙을 고수한다면 정치적 고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통합을 위해 무소속의 길을 택한 박지원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혈전을 펼쳐야 한다.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호남에서 양당 경쟁구도가 과열된다면 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주승용 의원은 편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 발언으로 국민의당의 정체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존재감도 낮아져 이는 총선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의 도전은 호남 민심 이반을 명분 삼아 묻지마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에 합류한 일부 의원들과는 정치적 결이 다르다”며 “그들이 과연 정치 생명을 건 도전을 통해 호남 정치권의 자존심을 세우고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총선 승리” 2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위원장, 조정관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F1 위약금 소송 대비 변호사 비용 30억 편성

F1 조직위원회가 F1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올해 예산 30억원을 편성했다. <관련기사 3면>
2016년 대회까지 3년 연속 F1대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F1 조직위가 F1 대회 주

관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를 상대로 소송 대비 태세를 갖췄다는 분석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F1 대회 협상 소송 관련 변호사선임료’ 명목으로 F1 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전남지사)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 F1 조직위가

2016년 F1대회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FOM도 ‘2016년 캘린더’에서 한국 대회를 최종 제외하면서 2015·2016년 대회 무산과 관련된 위약금 협상 및 관련 소송 절차만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FOM은 지난해 2월 2015년 F1 대회가 무산되자 “F1

조직위, 대회 미개최에 따라 FOM과 다음달에 협상 재개

조직위가 지난해 11월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며 위약금 지급을 F1조직위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 접촉에서 양측은 별다른 진척

을 보지 못한 채 2016년 대회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위약금과 관련 양측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F1 조직위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위약금 요구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FOM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FOM과 협상이 틀어져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세탁기 라인 1개 지난해 이미 폐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라인 해의 이전 결정에 앞서 지난해 말 세탁기 생산라인 1개를 이미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광주사업장은 세탁기 생산라인 2개를 가동했었지만 지난해 연말 이중 1개 라인 운영을 중단했다.
가동을 멈춘 세탁기 생산라인은 이미 광주사업장에서 철거돼 베트남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탁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이미 생산라인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광주사업장의 세탁기 생산라인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탁기 부품 협력업체들은 남아 있는 생산라인 1개도 결국 이전 절차를 밟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최근 냉장고 생산라인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다른 제품의 생산라인 추가 이전은 없다고만 밝혔으며 이번 세탁기 생산라인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장은 이번 주 중 회사 입장을 정리해 답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광주사업장과 비슷한 규모의 가전 생산기지를 조성하면서 광주사업장의 주요 가전 생산품목을 서서히 베트남으로 이전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011년 세탁기 일부 생산라인을 멕시코로 옮겼다가 국내로 가져와 다시 중국으로 옮겼으며, 2014년에는 청소기 생산라인을, 이번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세월호 유류 217박스 1169점 진도에서 안산으로 ▶6면

새팔도유람...氷GO 화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퍼부는 신뜻하게, 속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유통망확장이나 아모레퍼마쉴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